朝鮮前期 釜山地域의 地方行政과 關防

김 창 석
(부정역사연구소 연구원)

차 례

I. 머리말
II. 지방행정
   1. 지방행정조직
   2. 지방행정체계
III. 관방
   1. 관방체계
   2. 군역자원
   3. 관방시설
IV. 맺음말
Ⅰ. 머리말

조선전기의 고려시기의 각종 국가제도를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나간 변화와 발전의 시기였다. 다시 말해 조선전기는 중세봉건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그동안 중세봉건사회를 지탱해 나아온 각종 제도가 발전적 입장에서 정비되면서 체계화되어 있던 시기였다.

조선전기의 부산지역은 우리나라의 關門으로서 대일 교섭의 장구, 군사적인 요충, 상업 중심지로서 외교·국방·무역상으로 중요성이 어느 시기 보다도 깊이 인식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조선전기는 부산지역이 국가 전면적인 입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역사상 위상을 드러낸 시기였고, 해도 파편이 아니다. 이러한 면들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지만, 본고에서는 부산의 행정과 관방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밝혀 보고자 한다.

조선전기에 부산지역의 행정 구역은 지금의 부산, 기장, 김해, 진해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래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편입된 지역이며, 이들 지역이 모두 다 부산에 편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다루기의 경우 일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조선시기 부산지역의 중심인 동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방행정 문제이다. 지방행정 문제는 포괄적인 것이어서 단

1) 조선전기에 대한 인식에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다. 조선전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입장에서 변화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던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중세로 파악되지만, 근세로 보기도 한다.
2) 김의환, 『조선전기의 부산』『부산시지』상 1974; 지두환 『조선전기의 부산』『부산시사』 제1권, 1989.
편적인 이해가 쉽지 않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조선전기의 일반적인 행정 조직과 체계 속에서 부산지역의 행정을 규명해 보음을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위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전기의 지방행정은 국가 권력의 임장에서는 고려시기보다 점점 강화된 중앙집권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여 고려시기보다 다소 행정조직과 체계에 있어서 전문화와 세분화가 진행되어 나간 시기였다. 즉 조선왕조의 임장에서는 행정조직과 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지방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나갔다. 아울러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에 맞는 행정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갔다.

한편 조선전기에는 국가의 임장에서도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지방행정에 반영하였다. 지방행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인 지방사회의 실상을 고려하여 지방민의 자치조직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원활한 지방행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 민의 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자치조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부분적이지만 관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이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발전적 측면이었다.

또한 조선전기에는 부산지역의 특성상 대외무역을 다루는 외관이 두어졌는데, 이는 부산지역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대외관계로 인하여 부산만이 가지는 특수행정이었다. 그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하기는 끝나치게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關防문제이다. 조선전기에 중앙집권체제가 마련되면서

4) 김의환 「이조시대의 부산해양의 기관과 변천」 『일본학사연구』 2, 1977.
국가의 광범 체계와 조직도 확립되었다. 조선전기에도 부산지역에는 예우의 뜨거운 침입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최대의 피해였던 부산의 관방문제는 조미의 관심사였다. 때문에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대외방어의 일환으로 부산지역의 국방시설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에 부산에는 광범시설의 확충과 광범체계의 수립이 어느 지역보다도 중시되었다. 당시 부산지역에서의 관방문제는 새로운 광범체계의 수립과 시행, 광범시설의 축조,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가 어떤 군역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전기의 광범체계의 변화와 군역자원의 조달방법이 변화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본고에서는 조선전기의 대물관계에서 중요시 되었던 부산의 행정과 관방이 당연히 지방에 대한 국가 집권력의 확보와 국방의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행정 조직의 개편과 체계화를 통한 일원화, 군사지휘 체계의 확립과 군사시설의 강화, 군역자원의 확보로 진행되었다. 이런 면모를 조선 전기의 전국적인 변화상과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부산의 역사적 위상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지방행정

1. 지방행정조직

조선전기의 지방제도의 정비는 기본적으로 향소부국과 속현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지배하는 수로으로 편제하는 고려시기의 지방문적 지방행정 체계에서 관찰사가 통제하는 도 중심 체제의 중
양집권적 행정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였다. 즉 군현제의 정비로 나타난 조선전기의 지방행정은 위로는 8도 체제와 아래로는 면리체를 확립시키는 것이었다.5) 

먼저 조선전기의 지방행정 조직의 정비과정이다. 이는 8도 체제의 확립, 군현제의 정비로 진행되었다. 조선 왕조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두어 주를 통합하고 도에 직접 군현을 속하게 하여 관찰사의 통제를 받게 했다. 한편 군현에는 중앙에서 직접 수령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중앙집권적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하여 나갔다. 이에 따라 향-소. 부부가 속현을 군현에 소속시키거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나갔다. 이런 모습은 고려보다 진전된 조선의 모습이다. 따라서 향-소. 부부가 속현을 통제하던 향리들은 군현을 통치하는 수령의 직접 지배를 받는 6량의 행정관리로 전락하게 되었다.6)

그러나 수령과 향리로 구성된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에 대항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제도의 보조적인 기구로 지역 사정에 따라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6량을 설치하였다. 유향소는 조선전기에 여러 차례 설치를 거듭하면서 16세기에는 제도로서 확립되었다.7) 또 군현의 하부조직으로 총략을 중심으로 면리제가 확립되고, 이를 관찰하는 통제로 로어서 화풍, 향리, 면리제 등 지방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여 갔다. 이런 모습 역시 중앙집권적인 일원화 된 지방제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전기에 부산의 지방행정 조직의 변화 과정을 몇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고려시기까지 있었다 속현과 부부가 없어져 행정조직상의

5) 이수건, 『한국사』,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126-183쪽.
6) 이수건, 『한국사』,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154-158쪽.
7) 이태진, 『사람과의 유향소 복리운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임내의 혁과 면리제의 정착, 군현 명청의 개정과 항리 직제의 개혁으로 나타났다. 조선전기에 고려시기에 부산에 있던 4곳의 부곡과 1곳의 향이 없어졌다. 즉 윤주군의 속 현이었던 동래현에 있던 고지도부곡, 조정부곡, 형변부곡, 부산부곡, 생현향이 없어졌다. 대신에 동래가 독립된 군현이 되었다. 이런 변화로 모든 군현에 대한 일원적 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군현제도가 일단락되었다.

둘째, 조선전기의 부산지역에서는 행정 명칭으로 부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오늘날 부산이라는 지명은 釜山浦에서 유래되었다. 부산포는 15세기 전반까지 동래현에 소속되었던 부산부곡이 소멸되고, 항거와가 거주했던 지역으로 처음에는 釜山浦라 하였다. 15세기 후반 현제의 동구 좌천동에 있는 釜山의 당시 이름인 부산을 따라 산 주변 아래의 포구 일대를 부산포라라고 불렀다. 이 이후 역사상의 빈을 갖는 부산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지방행정상 부산지역의 중심지는 동래현이었는데, 곧 동래도 호부로 승격되었다. 행정 체계상으로 보면 조선전기의 부산의 행정 조직은 전국 8도 체제에서 경상도에 속했으며, 부산지역은 경상판할사의 통제를 받았다. 당시 부산은 독립된 행정 군현이 되지 못하고 동래현의 관할 하에 있었다. 동래현은 고려 중기에 주군으로 승격되었으며, 조선전기까지 동평현을 속현으로 삼았다. 그러나 1397년 (태조 6) 일본과 대치하는 국방의 요새로 인정되어 부산현이 설치되자, 동래현은 행정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거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군사적인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1406년(태종 5)에 부산진을 관할하는 동래현이 독립하면서 양산에 속해 있던 동평

---
8) 구산우,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구조」『향토부산』20, 2004, 4-14쪽.
현을 동래현으로 이속시켰다. 이에 동래현은 본격적인 군사와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편 1423년(세종 5) 부산진의 전역을 동래현에 옮겼다가 1443년
癸亥約條로 삼포가 개항되고 儂館이 설치되자, 외관과의 거리를 유
지하기 위하여 전역을 다시 동래현으로 옮겼다. 이에 문관직의 結習
을 파견함으로써 행정을 중심으로 동래현을 도에 직접 소속시켜 군
사적인 업무를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나 동래현이 군사적인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의 중심으로 부각
되어가는 것과 함께 부산은 좌수영성으로서 수군의 중요 거점으로
부각되어 나갔다. 아무리 성중 대까지 동래는 동래현을 중심으로 한
행정 중심지와 좌수영성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중심지로서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도관랄사의 지휘 아래에 편제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군현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산지역의 특수한 모습이다.

이후 부산지역은 세종 때에 삼포가 개항되면서 관문으로서의 기능
이 강화되었는데, 1544년 경상도에서 사량진왜란이 일어나자 1547년
이후에는 유일한 대일교역의 항구가 되었다. 따라서 동래현은 삼포
왜란 이후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東萊都護府로 승격되
었다. 이 때부터 동래는 지위가 격상되어 정3품 당산관인 문관 출신의
부사가 수령이 되었다. 이곳의 부사는 다른 고율의 수령처럼 일반적인
 amsterdam로 수행하였으며, 이 외에 대일 외교와 교역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중요성을 보
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방어 책임으로 동래현으
로 강등되었다가 1599년 다시 동래부로 승격되어 1910년 일제 강점

9) 『대종실록』 권39, 10년 1월 정사.
10) 수령의 업무는 무서히수로 알려져 있다. (이수진, 『한국사』 25, 조선초기의 정치
구조, 180-181쪽).
11) 『대종실록』 권67, 17년 1월 정유.
기까지 지속되었다.

넷째, 조선전기 부산지역 지방행정 조직에서 대일 관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부산지역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면이 다. 즉 동래현 시기에 부산포에서 중9품의 제학선생 1인이 있어 일본과의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동래도호부 시기에는 도호부사 아래에 총관이 있어 수준과 해운의 업무를 맡았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조선 전기에 국가에서 행정기록을 체계하여 학습을 갖고, 훈련과 계속 학습을 고용의 황교의 예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여 훈련범해 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록의 임기는 30년으로 비교적 길게 하여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한편 조선전기에 국가의 부산지역에 대한 배려는 다음과의 기록에서 도 알 수 있다. 즉 동래의 수령들은 해인의 물건을 나르느라 폐해가 많았으므로 가까운 고을에서 나르게 하여 폐해를 없애고, 고을의 행정은 회복될 때까지 너려가지 말도록 하고, 노비가 모자라므로 총리의 노비 80명을 뺀어서 주도록 조치하였다.

다섯째, 조선전기 지방행정 조직의 특징인 행시 직제의 개혁이 있었음을 부산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전기에 수령은 행정권과 함께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수령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실무 계층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들의 지나친 발호를 막는 것이 조선전기의 시대적 과제였다.

우선 조선전기 동래의 하위행정 조직은 중앙의 6법을 모방한 6법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사무는 행목이라 불리는 행리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행의 수석인 행장은 수령의 부재중에 직무

12) 「예종실록」 권20, 1년 8월 간언.
13) 「성종실록」 권1, 추위년 11월 간자.
14) 「중종실록」 권104, 39년 9월 개촉.
15) 이수신, 「한국사」 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155~158쪽.
을 대리 행사하는 首衙前의 위치에 있었다. 그 외에 이방과 형방의
세력이 커서 이들 首吏을 3名이라고 불렀다. 이들 아전은 대부분
토착인으로 그 직책은 세습되었으며, 신분은 중인이었지만 과거에
응시할 수는 없었다. 한편 이서중에는 군사 실무에 종사하는 軍校와
捕校가 있었는데, 이들이 근무하는 곳은 武備이라 하였다. 동래부의
군교들은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군사적 업무를 담당하던
이서중보다 권한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아에는 관노와
관비가 있어 공사 생활에 사용되었다.

여섯째, 조선초기의 부산지역의 지방행정 조직에는 지방자치 조직
이 있었다. 주목되는 것은 유항소였다. 이는 민간자치기구로서 郷亭
이라고도 하였다. 이곳의 임원은 郷佐이라 하였는데, 현에는 2명이
있었다. 유항소에는 座首가 수장으로서 6방을 문장하여 수령을 보좌
하고, 향리들의 약폐를 막으며, 관내의 규질을 담당하였다.⑬

이것은 15세기까지 道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확립되지 못하
고, 부국과 현을 기초로 주요한 연합한 지방분권적인 도 체제가 장존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항소의 치폐가 논의되면서 향존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향리와의 갈등이 점화되었고, 유항소의 제지품
관의 응호를 받으면서 향리를 통제하는 수령의 권한을 守令된 저제치
의 요구로 강화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유항소를 중심으로 한 제지품관
세력이 강화되고, 元老 향리 처벌 등으로 향리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수령고소지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15세기 향리
세력의 장존을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적인 지방행정 체제의 장존을
우주에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종반정 이후 道 중심체제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체제가 확
립되면서 한편으로는 유항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 절서가 정착되

⑬ 이수진,『한국사』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187쪽.
었다. 이에 지금까지의 소현과 부국제도가 소멸되자 이를 기반으로 했던 향리세력도 약화되었으며, 이들은 6방의 행정관리로 전락되어 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 중심지가 강화되고 병권을 관할하는 도 관찰사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강화되는 과정도 같은 추이였다.

일곱체, 동래현과 부 말에는 面, 그 아래는 跡(里, 村)이 있었다.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하부행정 조직으로 面里制가 시행되면서 향리 를 대신하여 권농관과 監領나 里正(里正)이 면리 단위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는 중앙권력이 민에 대한 지배를 실체 수행하는 과정이었는데, 동시에 이는 재지사족 등의 자치적인 것을 중앙행정 조직과 접목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17

이에 각 面에는 을문으로 본래 郡尹・郡尹・郡約正・郡約正・直 月・捕盗別將・捕盗官・僧徒契 등의 임원이 배치되었으며, 각 面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郡將・監考・通判主・進士總農을 두었다.

그렇게 이러한 面에는 중앙에서 관리되는 외관은 없었다. 대신 면에는 郡尹과 風憲이 있고, 동에는 約首와 洞長 등이 있었다. 이들은 좌수와 별관의 전례에 따라 부사가 임명하였다. 이에 面은 부사의 관 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향정과 향약의 계통을 이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面은 일종의 지방 자치단체적인 성격을 띠 것이었다. 조선전기의 면리조직은 향약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화와 통제, 실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관찰과 자치행정의 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동래현과 도ForResult에서도 이러한 조직이 작동하였다.

한편 面의 하부조직인 里와 跡에는 각각 里正 1명, 主人 1명씩을 두었다. 이들의 임무는 東萊府와 밀주의 중간에서 政令을 주치・전 달시키고, 부세의 납부를 돕려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18 특히 도장・

17) 이수간,『한국사』23, 조선조기의 정치구조, 188-191쪽.
18) 金燮容,『18세기 里正制의 屬邑村願搞家の 民権の 拓開と 明治』 『文献學報』58, 1984.
포도군관·도검장·기획장 등은 범죄의 수사와 죄인의 제포 등 경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점들은 통건사회 해체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집권력의 확보책을 말해준다.

또 민호의 조직은 5가작 통행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5가작 1통을 이루고, 5통으로 1통, 몇 통을 1개로 구성하였다. 5가작통법은 1408년(태종 8)에 논의가 비롯되어 세종 연간에 확립되었다. 그리고 경동대전, 호적조에 규정되었다. 이것은 향촌사회를 안정시키고 효과적인 정세·부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선전기 동래부의 행정구역은 기록이 없어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없다. 동래현의 인구는 290호에 남자 1,151명, 여자 1,265명으로 합계 2,416명, 동평현은 108호에 남자 342명, 여자 285명으로 합계 627명, 전체 398호에 3,043명이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국비 대상자인 양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인구는 1,200호에 7,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조선전기의 부상지역에는 공중 이후 동래현이 동래도호부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부곡과 속현은 동래부의 면리로 편제되어 도 중심의 일원적인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편제되었으며, 현으로는 향정이 정착 확립되고 면리장의 임명이 자치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 지방행정체계

조선전기 지방행정 체계는 경상도와 동래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전기의 지방행정 체계는 왕→감사→수령으로 이어

19) 면리임의 임무는 이 외에도 관농과 재민관리, 호구의 과약·보고, 군번정립과

운영감찰, 환군의 분할과 수령, 정량, 재원등이 있었다.

20) 이수관, 「한국사」, 23, 조선조기의 정치구조, 190쪽.

21) 「세조실록」 권50, 지리지 경상도 동래현
지는 관치행정 계통과 경계소→용양소→연리임으로 연결되는 사목 중심의 지역적인 향존자례 체제 및 이들 중간에 개개한 경지리·영리·율리의 항리제도의 3개가 서로 전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22)

먼저 관치행정의 계통의 확립이다. 첫째, 조선전기의 부산지역은 경상도 관찰사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조선전기에 도제는 태종대에 8 도제가 확립되었다.23) 이에 경상도는 1314년(고려 충숙왕 원년)부터 경상도라는 오늘날 사용되는 경상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그 영역은 지금의 충청도 북부와 남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경상도는 1392년(태조 원년)에는 상주에 흠을 두고 관찰사로 개칭하였으나, 1401년(태종 원년)에는 안찰사라고 개칭하고, 저역도 1413년(태종 13)에 영동, 육전, 보은 방면을 충청도에 귀속시켰다. 그리고 1464년(세조 10)에는 관찰사로 개칭하였다. 조선전기의 동래는 상주 감영 관찰사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1519년(중종 14)의 지방제도 개편에서 경상도는 좌도와 우도로 양분되어 니동강 동쪽을 좌도, 서쪽을 우도라 하여 각각 관찰사를 두었 다가 합쳐졌다.

그러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을 계기로 도제가 불통하자 다시 이분하여 좌도는 경주, 우도는 상주에 영을 설치하였다가 다음해에 복원하여 달성에 1599년(선조 32)에 안동, 1601년(선조 34)에는 대구에 차례로 감영을 옮겨 조선 후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조선전기에 부산지역은 경상도에 속하였으나, 경상좌도와 우도로 나뉘어 동래는 좌도에 속하였다. 그리고 1601년 이후에는 대구 감영의 관찰사의 행정체계 아래에 있었다. 조선전기 동래는 현이었다가 부가 되었으며, 관찰사의 명령을 수행하였다.

22) 이수건,『한국사』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126쪽.
23) 이수건,『한국사』25, 조선정기의 정치구조, 128-135쪽.
둘째, 조선전기에 행정구역인 군현은 옵세에 따라 주·부·군·현으로 구획되었으며, 수령이 엄무를 담당하였다. 조선전기 부산지역은 동래가 중심지였다. 이때 동래는 현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동래현은 이후 삼포왜란을 겪으면서 외구의 침략이 빈번해져 군사적 요충지로 부각되도록 이를 통제하는 행정 중심지가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1547년(명종 2)에 비대해진 법권을 관할하는 동래현이 동래부부로 승격되었다. 물론 이것은 동래가 1544년(중종 39) 사량진왜란을 계기로 유일한 대일 개방지로서 등장하여 외교와 경제적 비중이 높아진 까닭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래도호부가 되어 행정과 군사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기도 전에 임직왜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1592년의 임직왜란의 방어 책임을 묻어 다시 동래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599년 대일 외교지점의 중요성 때문에 동래부로 승격되었고, 1601년에는 문관직 부사의 파견이 이루어져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지방행정의 중심인 군현의 관리에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안에 수령이 집무를 보는 관아를 비롯하여 각종의 관청, 주정, 항교 등의 관아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부산지역의 동래에도 육성, 중신당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동래의 행정 체계는 사족인 외관을 돕는 향리 및 제지사족이 있어 운영되었다. 즉 당시의 지방행정은 수령과 그 예속기관인 적례, 武廳 등이 담당하고 있었다. 행정 체계상으로 조선전기 동래의 하위행정 조직은 중앙의 6법을 모방한 6법에 의해 분장되었으며, 사무는 衛前이라 불리는 향리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호방의 수석인 호장은 수령의 부재중에 직무를 대리 행사하는 首衛前의 위치에 있었다. 그 외에 이방과 행방의 세력이 커서 이들 중호를 3兄 公이라고 불렀다. 이들 아전은 토착인으로 그 직책은 세습되었으며,
신분은 중인이었지만 과거에 응시할 수는 없었다. 조선전기 동래현의 상인은 鄉, 宋, 玉, 丁, 堤이고, 來姓은 王, 朴, 李이고, 屬姓은 金이었다. 그리고 동평현의 성은 李였다.24) 한편 이 官府, 使令 등은 정원이 있었으나,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시종은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수령과 관아 권력을 배경 아래 백성들과 직접 대하는 가운데 부정이 많이 자행되었다. 특히 수령들이 그 지방 사정에 어둡고 게다가 실무를 모르고 재임기간이 짧았으므로 향리의 실권이 크게 작용할 소지가 많았던 것이다.25) 그런데 이러한 향리들에게는 국조에 잔재 토건 같은 토지가 논봉으로 부여된 바도 있지만, 논봉도 급전도 없는 산업이므로 생계에 보장이 없는 가운데 자제가 심하였다. 그렇에도 조선전기에는 비교적 향Erot가 엄격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수령이 타락하자 향리도 이와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충족시켜 나갔다.

마지막으로 유항소로 대표되는 지치행정 체계이다. 그것은 지방양반들로 구성된 鄉廵이 있었다. 이는 수령의 관아 다음 가는 기관이라 하여 賢亭이라고도 부르며, 그 임기는 賢任(監官, 賢正)이라 하였다. 부에는 4~5인, 현에는 2인을 두는 것이 통례였으나, 후대에 내려갈수록 점차 증가하였다. 동래현에서는 정, 숭, 옥, 조 등이 동평현에서는 이씨가 이런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유항소에서는 이들 士人 가운데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자를 座首로, 그 다음에 좌·우 별감을 각각 선거 주대하였다. 그들의 임기는 대개 2년이었지만, 수령이 경질되면 개선할 수도 있었 다. 이 역시 6방을 분방하여 좌수가 이·병방을 좌별감이 호·예방을 우별감이 형·공방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24)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정상도 동래현.
이들은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는 아니었지만, 수령을 보좌하고 항리 등의 악폐를 막고 관내 규직의 소입을 떠었다. 이것은 지방 행정력을 강화하려고 설치한 제도였으나, 1406년(태종 6)에 오히려 항소의 폐단이 많아 중앙집권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여 해프드기도 하였다. 26) 그러나 1428년(세종 10)에는 다시 항소를 두어 수령과 京所在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함으로써 종래의 사적인 단체였던 것을 행정기구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이후 그 세력과 영향력은 지방행정상에서 컸는데, 1467년(세조 13) 함경도의 토호인 李鶴愛의 난이 일어나자, 이것이 항소를 기반으로 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계기로 폐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항소에 대한 부활 여론이 높아져 1489년(성종 20)에는 복설하는 동시에 체제를 정비하여 그 후로 계속되었다.

그런데 유항소는 행정력의 강화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된 측면도 있었지만, 수령에 대한 압력 단체로, 또는 수령과 결탁하여 민폐를 가처분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경제소수각기 소관 군현의 유항소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유항소 임원의 임명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아울러 면리임이 두어져 중앙의 정령이 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었다.

III. 관방

1. 관방체계

조선전기의 군사제도는 국초에 많은 변동이 있었으나, 1464년(세조 10)을 전후하여 중앙군체와 지방군체가 일관되었다. 조선전기

26) 이태진, 「사람과의 유항소 복원운동」『진단학보』 34, 35, 1972, 73.
의 1397년 동래를 일본과 대처하는 국방의 요사로 인정하여 부산진에 설치되자, 동래는 행정적인 위치 외에 군사적인 거점이 되었다. 임진왜란 직전의 경상도의 군사제도는 전국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먼저 조선전기의 지방군제는 중앙 군제와 병합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에 중앙의 군제를 관리하는 성적은, 중앙의 군제는 대조에 중중, 中樞府, 義興三軍府, 兵曹가 군의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병조에는 예속한으로 武備司, 乘興司, 武備司를 두어 병제를 분장하였는데, 지방의 성수, 진수, 보수, 전함, 목마 등은 위의 3사 가운데 무비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후 중주부와 의흥삼군부의 후신인 五衛都監府와 봉조의 삼자 사이에 업무의 분장에 모호한 관계가 있어 조선전기의 군제는 혼란하였다. 이에 세조에 들어서자 병조의 지휘 아래 5위도총부가 위치하고, 이것이 중앙군단 5위의 병력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제 중주부는 한낮 전원의 기구로 전락되어 군사의 실권은 전혀 없었다. 5위는 義興衛(中衛), 龍騠衛(左衛), 虎賁衛(右衛), 忠佐衛(前衛), 忠武衛(後衛)로서 모든 병종이 편입되어 있었고, 각 위는 업직과 시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5위에는 각 위마다 중·좌·우·전·후 5부를 두어 각 지방의 군사를 분속시켰다. 이는 전국의 범상 군사를 거주지의 진관별로 파악하여 5위에 분속시키는 체제로 규정·시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경상도의 군사는 용양위에 소속되어 있었다. 용양위에는 중부에 京東部와 대구진판군사, 좌부에 경주진판군사, 우부에 전주진관군사, 전부에 김해진판군사, 후부에 상주와 안동진판군사가 소속되어 있었다.

27) 차문섭, 『한국사』 23, 조선조기의 정치구조, 군사조직, 214~238쪽.
이때 동래는 좌부 경주진관에 속했으며, 동래의 군사들은 5위 가운데서 용양위의 전부에 난상했다.

5위의 병력은 「경국대전」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내 급위 등 관병을 합쳐서 대략 2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분번
입직하는 기담에 평상시의 병력은 3,00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 후 1555년(명종 10)에 종양군제는 크게 변혁되어 왜구에 대한
방어를 위해 偏監司가 설치되어 군의 최고기관으로 등장하면서 병조
의 권한이 촉소되었다. 1555년 비번사를 創設하여 중외 군국기무
를 종영하게 하였는데, 都提調는 전임 현임의 좌우의정 또는 영의정
으로 겸임시켰다. 29) 이후 비번사가 지방의 군사까지 장악하였는데,
이것은 국방이 크게 중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는 조선 후기
에도 이어졌다.

다음으로 조선전기에 지방 군제의 개편에서 부산지역의 관방체제
가 정비되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전국 초에는 고려 말의 제도를 답습하여 경기좌도 양광도 경
상도 전라도 서해도 교주도 강원도의 8도를 군사행정의 전투행정 단
위로 하여 전임의 都節制使를 파견하였다. 30) 태조 3년에는 그 회하
에 兵馬使 1명, 知兵馬使 1명, 兵府使 1명, 判官 3명, 伴儂 3명 등 9명
의 군관을 배정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즉 태조대에는 관방제도를 지
방제도와 일치시켜서 병마사가 군정을 장악하고, 각 주군현의 병마
사는 知主事 知郡守 知縣事라 정하였다. 이때 부산지역의 동래는 지
현사가 군정을 겸하고 있었다.

28) 민현규,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29) 「중문문헌비고」 권215, 朝官考 3.
30) 민현규,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그러나 당시의 도절체행에는 적합 병력은 없었고, 유사시에 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에는 군 단위로 군적에 있는 병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1398년(태조 6) 5월에 이르러 도 단위 병마체제인 군정은 폐지되고, 각 도에 2~4개의 鎮을 설치하여 점검채사를 두어 인근에 있는 군의 병마를 통합하여 지키고 방어하며 관할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31) 동래는 경상도 4천의 하나로 등장하고 동래진 점검채사가 배치되었다. 이에 이르러 동래는 군사적 요충이 되었다.

당시 경상도에는 합포 강주 영해 동래 내 곳에 진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조선전기에 동래는 일찍부터 군사적 거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변혁은 각 도 안에 작은 단위의 군사구역을 설정하고, 그 중심거점인 진을 위수하여 방어에 효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1409년(태종 9)에는 다시 고쳐 중앙과 지방에 도절체사 점검채사 점검채사 圍練使 재단부사 단련관관을 두는 등 그 후 여러 번의 개혁을 통하여 지방군관직이 정비되어 갔다. 이때 동래진에는 병마사가 있었다.32) 1415년 (태종 15)에는 경상도의 관방을 좌도 우도 양도로 하여 병마절체사영을 분장하였다. 경상좌도에는 올산, 우도에는 창원을 각각 분치하였다. 좌도의 병권은 경주부윤이, 우도의 병권은 진주목사가 각각 겸임하고 있었다. 이때 동래는 경상좌도에 속하여 경주부윤의 지휘를 받았다.

세종대에는 鎮管區制도 바뀌었다. 이에 경상도의 경우에는 동래의 4천에서 5천으로 설정되었다.33) 경상도는 동래 올산 영일 홍해 사천의 5진관이었다. 이때 동래현의 속현 동평은 부산포와의 거리가 4~5

31) 「대조실록」 권11, 6년 5월 21일 일신.
32) 「태조실록」 권1, 1년 3월 임서.
33)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리였어 동래전의 병마를 옮겼어, 富山藩의 외교가 되게 하고, 동래는 예전대로 國學使를 두었다. 1426년(세종 8)에는 좌도병마사영이 폐지되고, 우도병마절도사가 겸관한 일이 있었으나, 1437년(세종 19)에 다시 울산을 도호부로 승격시키고 좌도병마사영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약간의 지휘계통에 변화가 있었으나, 동래는 태종과 세종 초년에 경상과 좌도병마사영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한편 1443년(세종 25) 대라도와 계해약조가 맺어지고 교력사는가 변함에 따라 혐의를 두게 되어 행정을 환경하였지만 동래관방군은 현에 그대로 예속되었다. 1457년(세조 3) 병원이 강화되면서 다시 행정권에서 병원을 분리하여 울산군의 취하에 진관체제가 정비되면서 경주관군의 병마절도사 관할하에 있었다. 그리고 현에는 종6품의 병마절제도위가 배치되어 관방군을 직접 지휘하였다. 이때 동래현에도 병마절제도위가 동래현령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세조대에 들어서 지방군제는 일단 완비된다. 세조 원년에는 내지의 주변에도 진을 설치하여 민안의 경우에 대비하여 하며 邊疆만 지키다가 무너지면 방어할 길이 없으니, 각 도에 여러 개의 巨鎭을 두고 인근 여러 영을 중과우익으로 분석시키고 각 업의 수령으로 하여금 모두 군사력을 겸임하게 하여 중의 무렵을 병마절제사 혹은 병마절제사라고 부르고 좌우의 수령을 병마관관사라 정하여 관내에서 중앙으로 변상하거나 현재의 여러 영 전 포에 입번하는 군사와 하번 군사의 점령에 관한 일들을 관할하게 하고, 稷色軍도 모두 각 익에 속하게 하였다. 이때 횡성군은 군사에 전국을 관할으로 편성하고 모든 수령이 군사력을 겸임하는 체제의 기본이 되었다.34)
세종과 세조 연간의 부산지역의 관방 체제는 다음과 같다.35) 육군

34) 著作人 「한국사」 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233~236쪽.

- 20 -
의 경우 동래에는 병마절사가 동래진에 있었다. 수군의 경우 좌도
수군도안무처사가 동래 부산포에 있었으며, 이 외에 동래 해운포
와 다대포영이 있었다. 이후 좌도 안무사가 없어지면서 부산포에는
좌도 도만호를 옮겨 임명하도록 하였다.36)

한편 세조 원년에는 전국적인 군익도가 작성되었다.37) 이때 경
상도에는 6도와 5진이 있었다. 당시 동래에는 동래진이 있었는데,
중앙은 동래, 우익은 울산, 좌익은 기장으로 동래가 중심이었다.
(표 1 참조)

<표 1>의 도는 진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군익도 편성시 동래는
거진있었는데, 그 휘하에 울산과 기장이 두고 있다.38) 이때 좌익 수
령은 중익 병마 절제사라 하고, 좌익 우익의 수령은 병마 단련
사·부사·관관이라 하였다. 그러나가 1457년(세조 3)에 도는 모두
진으로 개정되었으며, 좌우익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당시의 경상도
의 진과 소속 관할 사례보면 <표 2>와 같다.39) 이때 동래는 기장,
양산, 응양과 함께 울산전에 포함되어 있다.

이후 1466년(세조 12) 정월에 관제 대개혁과 함께 지방군제도 다
시 개편되어 일단 완비되었다. 육군의 경우 지방군장의 직명도 바뀌
었다. 즉 도절제사를 절도사로, 도진무를 칭호로, 단련사를 절제사로,
단련관관을 제제로개정하였다. 또 한 개의 도내에서 육군의 지
휘권을 가지고 있는 중2품의 병마절도사의 소재지가 주현이 되었다.
그 아래에는 정3품의 목사가 (의와하는 경우가 많은 절제사·부윤 또
는 절제사)가 하연을 단위로 하는 진관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으

35) 「세조실록」권150, 지리지 경상도
36) 「세조실록」권34, 8년 11월 기록
37) 「세조실록」권2, 원년 9월 기록
38) 「세조실록」권2, 1년 9월 기록
39) 「세조실록」권9, 3년 10월 정술.
<table>
<thead>
<tr>
<th>경주도</th>
<th>우익</th>
<th>백양</th>
<th>중익</th>
<th>경주 염천</th>
</tr>
</thead>
<tbody>
<tr>
<td>좌익</td>
<td>양산 안양</td>
<td></td>
<td></td>
<td></td>
</tr>
<tr>
<td>상주도</td>
<td>우익</td>
<td>문성 합장</td>
<td>중익</td>
<td>상주 개량</td>
</tr>
<tr>
<td>좌익</td>
<td>신산 금산</td>
<td></td>
<td></td>
<td></td>
</tr>
<tr>
<td>성주도</td>
<td>우익</td>
<td>거창 지례 안음</td>
<td>중익</td>
<td>성주 고령</td>
</tr>
<tr>
<td>좌익</td>
<td>함천 초계</td>
<td></td>
<td></td>
<td></td>
</tr>
<tr>
<td>안동도</td>
<td>우익</td>
<td>승홍 약천 봉기 염천</td>
<td>중익</td>
<td>안동 왜성 의흥 진보 주안 청웅 용군 비안</td>
</tr>
<tr>
<td>좌익</td>
<td>봉화</td>
<td></td>
<td></td>
<td></td>
</tr>
<tr>
<td>전주도</td>
<td>우익</td>
<td>함양 삼운</td>
<td>중익</td>
<td>전주 단성 삼가</td>
</tr>
<tr>
<td>좌익</td>
<td>의령</td>
<td></td>
<td></td>
<td></td>
</tr>
<tr>
<td>대구도</td>
<td>우익</td>
<td>인동 귀위 신령</td>
<td>중익</td>
<td>대구 해양 경산</td>
</tr>
<tr>
<td>좌익</td>
<td>청도 염산 창녕 현풍</td>
<td></td>
<td></td>
<td></td>
</tr>
<tr>
<td>동래전</td>
<td>우익</td>
<td>용산</td>
<td>중익</td>
<td>동래</td>
</tr>
<tr>
<td>좌익</td>
<td>가랑</td>
<td></td>
<td></td>
<td></td>
</tr>
<tr>
<td>영해전</td>
<td>우익</td>
<td>영덕</td>
<td>중익</td>
<td>홍례</td>
</tr>
<tr>
<td>좌익</td>
<td>청화</td>
<td></td>
<td></td>
<td></td>
</tr>
<tr>
<td>사천전</td>
<td>우익</td>
<td>곤양 하동 독진 거계 남해</td>
<td>중익</td>
<td>사천</td>
</tr>
<tr>
<td>좌익</td>
<td>고성 진해</td>
<td></td>
<td></td>
<td></td>
</tr>
<tr>
<td>영일전</td>
<td>우익</td>
<td>홍례</td>
<td>중익</td>
<td>영일</td>
</tr>
<tr>
<td>좌익</td>
<td>장기</td>
<td></td>
<td></td>
<td></td>
</tr>
<tr>
<td>용천전</td>
<td>우익</td>
<td>창원 함안 천원</td>
<td>중익</td>
<td>용천</td>
</tr>
<tr>
<td>좌익</td>
<td>김해</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表 2 경상도의 진과 소속군

| 안동진 | 중기 영천 성화 의성 예안 진로 창흥 군령 비안 |
| 경주진 | 영해 영덕 경화 홍해 영인 장기 영천 영량 |
| 순천군 | 기장 동해 양산 연향 |
| 장전진 | 김해 고성 윙천 창천 진해 거제 |
| 대구진 | 영산 창녕 향동 안동 의호 신님 해양 경산 청도 |
| 전주진 | 사천 곤양 황해 남해 단성 삼음 의림 합량 삼가 안음 |
| 성주진 | 초계 참취 거창 고령 지례 |
| 상주진 | 신산 개령 금산 합창 용궁 문경 예천 |

며, 백단의 諸鎭은 종4품의 군수 이하가 동첨질제사, 만호, 절제도원 등의 직함을 맡고 있었다.40)

병마절도사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종2품의 관찰사가 例로하였지만, 충청 전라 황해 평안도는 2원으로 그 가운데 한 명은 관찰사가 겸하고, 다른 하나는 전일의 병마절도사로 하였다. 그리고 경상도와 함경도는 국방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찰사가 예절하는 병사 이외에 전일의 병마절도사 2원이 따로 있었다. 즉 경상도는 좌도와 우도로 이분하여 각각 1명씩 두었다. 이에 군사의 지휘권은 주간의 각 도 병마사로부터 거진의 철결제사로, 또 그로부터 여러 진의 동첨질제사로 연결되는 일원적인 계통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행정관과 아울러 병마사를 가진 관찰사는 동시에 각급 진의 병마관을 겸하는 수령 이상임이었기 때문에 다른 병사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이때 동에는 경상도 육군진에 속하게 되었다.41)

한편 수군도 육군과의 긴관관계에 따라 전관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나 대체로 큰 변화는 없었다.42) 각 수군의 최고지휘관은 종3품의 수군절도사로 함양도와 황해도는 1원으로 관찰사가 예절하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3원이 있었으나, 1원은 관찰사가 겸하고 나머지 2원은

40) 註文섭,「한국사」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237쪽.
41) 「세조실록」권9, 3년 10월 경순.
42) 註文섭,「한국사」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237쪽.
병사가 겪었다. 경기도와 충청도는 2원으로 1원은 관할사가 겪고 1원은 전임의 수사를 두었으며, 경상도와 전라도는 3원으로 1원은 관할사가 겪고, 2원은 도를 이분하여 각각 전임의 수사를 두었다. 이 밖에 제주에는 1465년(세조 11) 병마수군절도사를 두어 목사로 하여 겪게 하였으나, 예중 원년 이듬 병마수군절제사로 낙취 목사가 겪었다. 수사 밑에는 부사인 우후가 있고, 그 아래에 침⺫체사로는 도만호가 있고, 이들의 지휘 아래에 각 포의 만호가 통솔되고 있었다.

한편 진관책제가 완성된 육군과 수군의 편성은 전국을 방어지역화한 것이었다. 이처럼 지역방위를 중시하였던 진관책제 하의 경상도의 방어체계는 <표 3>과 같다.

이와 같이 조선전기에 전국이 갈으므로 편성되고 진관책제에 의해 장악되는 체계적인 방어조직이 정비되었지만, 모든 지역에 무장된 군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전국의 백성이 군정이었지만 그들은 정법으로 중앙에 반향하거나 특수부대에 부당할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평시의 전 지역에는 해당 진관에 속하는 각종 군사가 비번인 상태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현실적으로는 잡재적인 군사를 이루고 있었을 뿐이었다.

육군의 경우 조선전기 부산지역에는 동래도호부가 있었다. 조선전기에 동래현은 군사적으로 울주군 등과 함께 온산에 있던 경상좌병영 관할하의 경주 진관에 속하는 여러 진 가운데 하나로 동래현령이 제료부의 군사를 겪고 있었다. 이는 행정과 군사가 분리되지 않은 지방행정 체계상의 미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가 1547년 동래현이 도호부로 승격하자 동래부사가 제료부사의 군을 가지고 동래부 일원의 육군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수군은 경상좌도 좌수령의 관할 하에 있었는데, 큰 변화가 없었다. 그때 부산지역에는 부산포진관이 해운포만호와 대포만호 등을 거느리는 수군의 본산이었다. 부산지역이 경상도, 국가 수군 방
<표 3> 조선전기 경상도의 鎭管體制(43)

<table>
<thead>
<tr>
<th>직책</th>
<th>관할구역</th>
<th>소재지</th>
<th>관할 전과</th>
<th>관할 지역과 직책</th>
</tr>
</thead>
<tbody>
<tr>
<td>총관사</td>
<td>정상도</td>
<td>경주</td>
<td>홍수군</td>
<td>경주관관 정병현감</td>
</tr>
<tr>
<td></td>
<td></td>
<td></td>
<td>양산군</td>
<td>양산관관 장애현감</td>
</tr>
<tr>
<td></td>
<td></td>
<td></td>
<td>청진군</td>
<td>청진관관 장기현감</td>
</tr>
<tr>
<td></td>
<td></td>
<td></td>
<td>홍성군</td>
<td>홍성관관 조희현감</td>
</tr>
<tr>
<td></td>
<td></td>
<td></td>
<td>영덕군</td>
<td>영덕관관 조국현감</td>
</tr>
<tr>
<td>(안동관관)</td>
<td>안동</td>
<td>안동대도부사</td>
<td>안동관관 의성현감</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양산부사</td>
<td>양산현감</td>
</tr>
<tr>
<td>(대구관관)</td>
<td>대구부사</td>
<td>대구부사</td>
<td>대구현감</td>
<td></td>
</tr>
<tr>
<td>우병사</td>
<td>정상도</td>
<td>경주</td>
<td>경주부사</td>
<td>경주관관 정병현감</td>
</tr>
<tr>
<td>수 후</td>
<td></td>
<td></td>
<td>청주부사</td>
<td>청주관관 정병현감</td>
</tr>
<tr>
<td>우병영 (경원)</td>
<td></td>
<td></td>
<td>상주부사</td>
<td>상주관관 정병현감</td>
</tr>
<tr>
<td></td>
<td></td>
<td></td>
<td>김산군수</td>
<td>김산관관 정병현감</td>
</tr>
<tr>
<td></td>
<td></td>
<td></td>
<td>원주군수</td>
<td>원주관관 정병현감</td>
</tr>
<tr>
<td>(진주관관)</td>
<td>진주품사</td>
<td>진주품사</td>
<td>진주관관 정병현감</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홍성군수</td>
<td>홍성관관 정병현감</td>
</tr>
<tr>
<td></td>
<td></td>
<td></td>
<td>음영군수</td>
<td>음영관관 정병현감</td>
</tr>
<tr>
<td>(경남관관)</td>
<td>경남부사</td>
<td>경남부사</td>
<td>경남관관 정병현감</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합천군수</td>
<td>합천관관 정병현감</td>
</tr>
<tr>
<td></td>
<td></td>
<td></td>
<td>영덕군수</td>
<td>영덕관관 정병현감</td>
</tr>
<tr>
<td></td>
<td></td>
<td></td>
<td>강릉군수</td>
<td>강릉관관 정병현감</td>
</tr>
<tr>
<td>수군</td>
<td>정상도</td>
<td>수영 (동래)</td>
<td>두산관관 부산부(동래)관사</td>
<td>두산관관 부산관관 정병현감</td>
</tr>
<tr>
<td>총관사</td>
<td></td>
<td></td>
<td>동해관관 담보관관 정병현감</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포항관관 포항관관 정병현감</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울진관관 울진관관 정병현감</td>
<td></td>
</tr>
<tr>
<td>우수사</td>
<td>정상도</td>
<td>거제 (동래)</td>
<td>제포관관 제포관관 정병현감</td>
<td></td>
</tr>
<tr>
<td>수 후</td>
<td></td>
<td></td>
<td>제포관관 제포관관 정병현감</td>
<td></td>
</tr>
</tbody>
</table>

43) 육군본부, 『한국군사』 근세조선전기 편, 1968, 140쪽.
어체에서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 경상도에는 정3품 수군절도사 3명을 두어 2명은 좌도와 우도를 양분하고, 1명은 경상도관찰사가 겸임하였다. 이때 좌도에는 부산포전관이 설치되고, 동평현 부산포에는 종3품 수군첨결제사사를 둔 거점이 있었다. 그 관하에 10개의 정4품 만호영이 있었다.

이처럼 조선전기의 방어체제도의 서놀연간에는 거의 정비되었다. 경상도의 경우 낙동강의 좌도와 우도의 지리적 조건을 중시하여 군사체제가 마련되었으며, 경상좌도 안에서도 지리적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누어진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진판이 설정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나라의 전통적인 방어체제는 무엇보다도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전기 부산지역은 경상좌도에 속하였는데, 육군과 수군의 주요 군사 거점으로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1510년(중종 5)의 삼포왜란과 1544년(중종 39)의 사량왜란이 일어나자 적이의 침략에 진관체제의 변화는 미묘지만도로도 제고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1522년(중종 17)과 1544년(중종 39)에 진관체제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표 4〉에서 보면 수군의 진관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포전관의 몇 개의 포령이 없어지고 있지만, 부산의 좌익에 가덕도 진관이 신설되고 있으므로, 4) 부산의 방어는 약화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산포전관은 해안을 따라하는 곳이어서 장방관을 차출하여 보냈다. 4) 다만 좌도의 제포가 폐지된 것은 이 방면의 위험성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리를에는 큰 진영으로 군사 100명과

44) 출처,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와의 변동』, 2001, 해안.
45) 『중종실록』 권104, 39년 9월 무신
46) 『중종실록』 권104, 39년 9월 간자
### 표 4) 경상도 수군 진관 개편

<table>
<thead>
<tr>
<th>진관의 현제</th>
<th>중종 17년과 39년의 개편</th>
</tr>
</thead>
<tbody>
<tr>
<td>부산포진관</td>
<td>부산포진관</td>
</tr>
<tr>
<td>무포 해운포 포이포 서성포 다대포 감포 철포 오포 염포 축산포</td>
<td>사영포 두포포 계은포 (천진) 포포 포포 포포 (천진) 다대포</td>
</tr>
<tr>
<td>제포진관</td>
<td>미조항진관 (중종 17년)</td>
</tr>
<tr>
<td>옥포 지세포 조라포 안글포 완산포 영등포 사량포 단포 적포</td>
<td>영산포 영등포 사량 단포 적포</td>
</tr>
<tr>
<td>가락진관 (중종 39년)</td>
<td>창성도(신설) 가해포 (신설) 옥포 지세포 조라포 안글포</td>
</tr>
</tbody>
</table>

군관 3인을 더해주도록 하였다. 47) 반면에 해운포영은 동래진과 가깝고 부산포와도 멀지 않아 수륙의 방위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해파되었다. 48) 그 후에도 왕조는 계속 해방에 힘을 기울였다. 명종대에는 부산포진관의 관할하의 옥산 서성포는 가덕도첨사영 관하의 구산포, 미조항첨사 관하의 적진포 등의 안호와 함께 정4품으로 승격되고 동첩계계사라 정하였다. 49)

한편 원래 진관체계는 육군은 육군대로 수군은 수군대로 해상과 육상으로 수어 관할이 달라지고 있었지만, 성종대 성호 축조가 이루 어진 후에는 육군과 수군의 혼성 및 병사의 수군 겸치의 제도가 나왔다. 이에 왕조는 해방에 주력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부산지역의 해방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방어체계는 전무한체제에서 乙卯倭變 이후 제도가

---

47) 「중종실록」 권104, 39년 9월 감사.
48) 「세조실록」 권6, 3년 1월 신사.
49) 자문집, 『한국사』 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244-247쪽.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다. 종래에 경상도는 김해, 대구, 상주, 안동, 진주 등 6개의 전관이 적극 대처하고 있어 한 전이 무너지면 다른 전이 대신하여 싸움으로써 일시적인 통과의 위험이 적었다. 즉 조선전기의 '방어체제는 전관체제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전시와 평상시를 막론하고 국방의 실체는 전관체제에 의한 지방군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군역의 '부여화와 지방 수령들의 부패로' '부와 대장부' '현상이 일반화되자 부의 불법적인 정수와 '박해가 나타나' '군인 연간에 이르면' 군사는 편제상에만 존재하고 실질적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50)

2. 군역 자원

관방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역 자원의 조달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육군의 경우 군사의 동원이 중요하였으며, 수군의 경우는 군사의 동원, 군선의 조달, 통신의 확보 등이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전기 세종과 세조 연간의 군역 실태는 다음과 같다.51) 육군의 경우 동해에는 병마열결사가 동해진에 있었는데, 예하에 군관 300명, 수성군 80명이 배치되어 모두 380명이 있었다.

수군의 경우 좌도 수군도안무처사가 동해 부산포에 있었는데, 병선수 33척, 수군 1,779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이 외에 동해 해운포와 다대포에 각각 병선수 7척과 9척이 있고, 수군 589명과 723명이 있었다. 이후 좌도 안무사가 없어지면서 부산포에는 좌도 도반호를 몰게 임명하도록 하였다.52)

〈표 5〉와 〈표 6〉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경상도의 국방에 있어서는 육군보다 수군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육군은 6건에 2,867명

50) 출처, 『임진왜란과 경상도의 의병운동』, 2001, 제안.
51)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52) 『세종실록』 권34, 8년 11월 기해.
의 군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 영전도 해안지방이므로 해안 방어에 동원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었다. 반면에 수군은 21개 포영에 병
선 285척, 군사가 16,594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군의 전영과 군사의 수에서 부산의
군사적 비중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군도안무처치사의 본영
이 부산포에 있었으며, 그 하에서 11개 포소의 만호가 있다. 부산포
는 병선 33척과 1,799명의 선군을 갖고 있어 위용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해운포와 다대포에 병선이 각각 7척, 9척이 있었으며, 군사수는
각각 589명, 723명이 있었다.

〈표 5〉 경상도 육군 배치표⑤3)

<table>
<thead>
<tr>
<th>군단명</th>
<th>소재지</th>
<th>병중(명)</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봉마도전제사</td>
<td>창원</td>
<td>군란</td>
<td>수성군</td>
</tr>
<tr>
<td>봉마철절사</td>
<td>동래진</td>
<td>300</td>
<td>80</td>
</tr>
<tr>
<td>봉마철절사</td>
<td>운산진</td>
<td>399</td>
<td>30</td>
</tr>
<tr>
<td>봉마철절사</td>
<td>영일진</td>
<td>301</td>
<td>80</td>
</tr>
<tr>
<td>봉마도전제사</td>
<td>창원</td>
<td>500</td>
<td>438</td>
</tr>
<tr>
<td>봉마철제사</td>
<td>영해진</td>
<td>300</td>
<td>80</td>
</tr>
<tr>
<td>봉마철제사</td>
<td>사천진</td>
<td>300</td>
<td>39</td>
</tr>
<tr>
<td>합계</td>
<td></td>
<td>2,100</td>
<td>767</td>
</tr>
</tbody>
</table>

⑤3)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 29 -
<표 6> 경상도 수군 배치표54)

<table>
<thead>
<tr>
<th>군관장 명칭</th>
<th>소재지</th>
<th>병선수(척)</th>
<th>수군수(명)</th>
</tr>
</thead>
<tbody>
<tr>
<td>좌도수군도안무처지사</td>
<td>동래 부산항</td>
<td>33</td>
<td>1,779</td>
</tr>
<tr>
<td>수군반호</td>
<td>동래 배운포</td>
<td>7</td>
<td>589</td>
</tr>
<tr>
<td>수군반호</td>
<td>동래 다대포</td>
<td>9</td>
<td>723</td>
</tr>
<tr>
<td>수군반호</td>
<td>기장 두모포</td>
<td>16</td>
<td>843</td>
</tr>
<tr>
<td>수군반호</td>
<td>울산 쌍운포</td>
<td>12</td>
<td>420</td>
</tr>
<tr>
<td>수군반호</td>
<td>울산 서성포</td>
<td>20</td>
<td>767</td>
</tr>
<tr>
<td>수군반호</td>
<td>울산 일포</td>
<td>7</td>
<td>502</td>
</tr>
<tr>
<td>수군반호</td>
<td>장기 포이포(가압포)</td>
<td>8</td>
<td>589</td>
</tr>
<tr>
<td>수군반호</td>
<td>홍해 동영포(두모석포)</td>
<td>8</td>
<td>213</td>
</tr>
<tr>
<td>수군반호</td>
<td>영덕 오포</td>
<td>8</td>
<td>353</td>
</tr>
<tr>
<td>수군반호</td>
<td>경주 김포</td>
<td>8</td>
<td>387</td>
</tr>
<tr>
<td>수군반호</td>
<td>홍해 충산포</td>
<td>12</td>
<td>429</td>
</tr>
<tr>
<td>수도수군도안무처지사</td>
<td>거제 오야포</td>
<td>28</td>
<td>2,601</td>
</tr>
<tr>
<td>수군반호</td>
<td>거제 영등포</td>
<td>8</td>
<td>700</td>
</tr>
<tr>
<td>수군반호</td>
<td>고성 가배항(거제 옥포)</td>
<td>22</td>
<td>1,122</td>
</tr>
<tr>
<td>수군반호</td>
<td>김해 제포</td>
<td>9</td>
<td>882</td>
</tr>
<tr>
<td>수군반호</td>
<td>고성 간내항(거제 옥포)</td>
<td>20</td>
<td>940</td>
</tr>
<tr>
<td>수군반호</td>
<td>고성 반해(당포)</td>
<td>15</td>
<td>722</td>
</tr>
<tr>
<td>수군반호</td>
<td>진주 구양포(고성 사포)</td>
<td>16</td>
<td>748</td>
</tr>
<tr>
<td>수군반호</td>
<td>진주 적령(감귀)</td>
<td>13</td>
<td>720</td>
</tr>
<tr>
<td>수군반호</td>
<td>진주노량(방산포)</td>
<td>8</td>
<td>568</td>
</tr>
<tr>
<td>합계</td>
<td></td>
<td>21</td>
<td>285</td>
</tr>
</tbody>
</table>

54)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한편 조선전기에는 전략상의 특수지대에는 항상 군사가 배치되어서 복무하였으니, 이를 서울군이라 하였다. 조선전기에 전국에 배치된 유방군의 배치지역과 병력 규모는 다음과 같다.55)

<표 7> 전국 유방군의 배치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유방 4旅</th>
<th>유방 3旅</th>
<th>유방 2旅</th>
<th>유방 1旅</th>
<th>합 계</th>
</tr>
</thead>
<tbody>
<tr>
<td>경성도</td>
<td>주전</td>
<td>동래 응원</td>
<td>홍해 과해 사천 영입</td>
<td>진해 기계</td>
<td>24旅(3,000명)</td>
</tr>
<tr>
<td>충청도</td>
<td>주전</td>
<td>비례 감로 계안</td>
<td></td>
<td></td>
<td>9旅(1,125명)</td>
</tr>
<tr>
<td>전라도</td>
<td>주전</td>
<td>우주 무정 부안 순천</td>
<td>홍양 정도</td>
<td></td>
<td>13旅(1,625명)</td>
</tr>
<tr>
<td>황해도</td>
<td>강진 장연</td>
<td>황주 수안 순천 원진</td>
<td></td>
<td></td>
<td>8旅(1,000명)</td>
</tr>
<tr>
<td>강원도</td>
<td>강동 삼치</td>
<td></td>
<td></td>
<td></td>
<td>2旅(250명)</td>
</tr>
<tr>
<td>개성부</td>
<td>정직 유수무 순주</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평안도</td>
<td>양계 진사 정직 모두 서울본부</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육군의 경우 조선전기에 동해에는 서울 3旅가 지키는 군사기지로서 국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56) 즉 동래부사의 취하에는 유방 3旅의 380명의 군사가 있었다.57) 이는 守城軍 80명, 堪鎭軍 300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가 성종대에 들어서면서 군사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미 세조 연간에 동래에는 군사가 적고 약하다고 지적되어 변상 시위폐에 3旅을 뽑아내어 배속시키는 등 700명을 3旅으로 나누어 2달에 서로 갈마도록 조처하였다.58) 성종 이전에 263명, 성종 원년 230명, 성종 3년 이후에는 230명이었으며,60) 190명으로 줄었

55) ‘경국대전’ 병진 유방조
56) ‘세조실록’ 권4, 13년 3월 경요.
57) ‘세조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58) ‘세조실록’ 권5, 2년 12월 기기.
59) ‘세조실록’ 권28, 8년 6월 신초.
다. 60) 그러나 이러한 군사수의 감소는 불명확하다. 다만 이러한 감소 요인은 수군의 필요성이 중시되어 육군이 감소하였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피폐해진 것이 원인 이었다. 61) 사실 중종 5년의 삼포왜란과 중종 36년의 제포왜란의 작 패로 중종 39년에 제포왜란을 폐쇄함과 동시에 가덕도에 선병진을 설치하였다. 한편 관방군인 육군을 축소시키고, 수군을 확장하였다.
조선전기에 경상좌도와 우도의 군사수는 1454년에 11,287명과 11,154명으로 합쳐서 22,441명이었다. 1477년이 되면 경상도의 정군은 35,517명에 추로 94,810명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62) 그러나 중종 연간에는 10여 만의 군사 중 2만여 명만 파악되고 있었다. 이것 을 당시 방어해야 할 33개 소에 3교대로 나누면 1개소에 겨우 100명 적반할량정 뿐이었다. 63) 당시의 실제 군사는 8천여 명뿐이었다. 64) 이처럼 실제 군수와 국가에서 파악한 군수는 1/10에 불과하였 다. 한편 중종 초년 경상도의 정군은 7만, 관군이 20여 만으로 파악 되었지만, 65) 문제는 허수가 여전히 많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래현이 도호부로 승격하자 도호부사가 육군의 병마력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동래수성장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부사가 행정과 군서관을 가지게 되어 지위가 높아졌다. 동래부사가 임시 동래수성장의 소속구는 양산과 가장이며, 병권과 병력은 아병 3조(보

---
60) 「성종실록」 권3, 1년 2월 기록.
61) 「성종실록」 권15, 3년 2월 기록.
62) 경상도 전체의 정군 수가 21,910명에서 19,915명으로 줄었다(「성종실록」 권15, 3년 2월 1일 무신).
63) 「성종실록」 권81, 8년 6월 기록.
64) 「중종실록」 권15, 7년 2월 신사. 한편 1514년 경상도의 군수는 2만으로 여겨졌다(「중종실록」 권21, 9년 10월 1일 무신).
65) 「중종실록」 권13, 6년 2월 기록.
66) 「선조실록」 권142, 34년 10월 기록.
600명), 속오군 11조(보 1,375), 별두사 2조, 표화군 148명(보), 수사군 200
명(보 200명) 승군 3조였다. 아울러 화차 10량이 동래전에 두어졌다.67)
그러나 중종 연간에 군사가 부족해지자 부산포에는 정병 2리가 상
변하지 않고 유방하도록 조치하였다.68) 하지만 군액의 부족을 베풀
수가 없었다.
조선전기 동래지방은 나라의 관문으로서 해방은 육방 이상으로 중
시되었다. 먼저 좌수방향의 존재이다. 정상좌수영은 처음 동래현 부
산포에 설치되었다.69) 그러나 부산포에 설치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
다.70)
그렇게 조선전기의 수군의 발전은 육군과 병행되었다. 수군도질제
사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왜구의 침입이 심해졌던 1393년(태조 2)이
였다. 수군은 각 도벌로 수군도질제사에 의해 지배되었는데, 도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 태종대에는 경상 전라 충청 3도를 통합하는 수군
도질제사를 두는 한편, 그 외에 연안 해상의 군관인 만호와 철호에
게 직무까지 명시하고 있었다. 관용으로는 3-4품의 위계가 주어졌
다. 경상도는 좌도와 우도를 분리하여 경상수군도질제사를 분치하
고,71) 인천과 제주도를 도질제사로 삼았다.72) 한 예로 대도포는 긴
요하지 않은 곳이라 하여 좌도 도만호로 하여금 검을 거느리게 하
였다. 이에 다도포에는 청호를 두고 부산포의 병선 3척을 나누어 볼
았으나 병선의 수가 적어서 출하 정박시키지 못하고, 도만호가 있는
부산포에 정박시키고 있었다.73) 그러다가 다도포가 좌도와 우도의

67) 「분중실록」 권8, 1년 6월 일신.
68) 「중종실록」 권104, 39년 9월 개축.
69) 「성종실록」 권23, 24년 10월 일오.
70)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동래현. 그런데 「釜山府使原稿」에서는 부
산의 감발력에 있었다고 한다(「부산부사원교」 1권, 423쪽).
72) 「태종실록」 권25, 13년 4월 옵초.
중양의 요해처리로 무호를 차관하게 되었다.\(^{74}\)
세종대에 들어서는 수군도절제사의 명령도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한국의 수군(기신군)은 수군절도사에 의해 통합되었으며, 사실상
要塞守懷處別軍事的 단위를 이루는 것은 각 지역의 만호들이었다.
각 도별로 1인 혹은 2인의 수군절도사가 순직을 설치하고, 다시 각
처에 도만호, 만호 등으로 포기선군을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도만호가 있는 곳에 壖嘆을 두고, 도만호는 장주하는 곳이 없이 소
속 각 포의 병신 1척을 때내하여 순화하며 방어하되 경상좌도의 도만
호는 處置使와 소속된 포 내의 9포를 거느리며 병신이 모두 10척
이 되었다. 당시 좌도의 도만호는 염포에 있었다.\(^{75}\) 세종대에 경상도
가 좌도가 우도로 나누어지고 있을 때 좌도의 수군도안무처치사는
동래 부산포에 있었으며, 그 후에는 11개 포소 만호가 있었다. 이때
부산포에는 33척의 병신과 1,799명의 선군을 갖고 있어 다른 포영에
비해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세조대에는 전관체제로 개편되어 수군안무처치사를 수군절도사로
개편하는 동시에 경상도에 두품의 수군절도사 3인을 두고, 두개 좌
우도로 양분하고, 하나는 경상도판찰사가 겸임하였다. 이 개편에서
경상좌도에는 부산포건관이 설치되고, 동명현 부산포에는 종3품의
수군절절제사를 두 거진이 있으며, 그 관하에 10개의 종4품 만호영
을 통솔하고 있었다. 이때 동래군과 가깝다는 이유로\(^{76}\) 혜화군 해운
포의 蓉軍 400명을 부산포와 다대포 등에 별도로 배치하였다.\(^{77}\) 그
때 부산포건관의 병신수는 다음과 같다.\(^{78}\)

\(^{73}\) 「대중실록」 권14, 7년 7월 무년.
\(^{74}\) 「대중실록」 권34, 17년 8월 계료.
\(^{75}\) 「세종실록」 권86, 21년 7월 방인.
\(^{76}\) 「세조실록」 권14, 4년 11월 무승.
\(^{77}\) 「세조실록」 권6, 3년 2월 기미.
이처럼 조선전기에 부산포전관과 제포전관 단위로 수군의 방비를 편성한 것은 삼포개방에 따라 왜인의 출입이 많아지고, 아울러 포소에 항상 거주하는 왜인까지 생기기 기정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삼포의 개항 후에도 왜구의 침입이 근절되지 않고 왜인의 작폐가 빈번하였으므로 상공대에 들어서는 한층 해방에 주력하였다. 그 일의 하나로 남방 연번 제포에 성보와 포성 축조를 계획하였다. 그때까지 제포의 수군은 만호의 저위 아래 병기와 양식을 병선에 적재하고 선상에서 대기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때에는 포에 성보 같은 방벽이 없었다.

1484년(성종 15)에 비로소 성보의 축조가 계획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원칙은 해상에서의 방어전략은 수군이 담당하고, 적이 상륙하면 육군이 담당하는 것이었으나, 그렇게 되면 수군과 육군의 차이가 없이, 만호 등의 근무가 훈련해지며 또는 군사를 폐쇄시키고 대가를 받는 동 수군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반대가 많았다. 79) 그러나 선격의 해�_FAMILY로 수군의 고생을 이유로 성보 축조가 1485년(성종 16)부터 착수되어 성종 말년에 완성되었다.

78) 『경국대전』 兵典 船道兵船 慶尚道.
79) 『성종실록』 권156, 15년 1월 감신
이에 동래에서는 부산포가 성종 21년 8월, 다대포 족성이 성종 21년 11월에 각각 완성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부산포, 염포, 제포 등은 훼손이 설치되어 있던 점에서 방어체계 강화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래, 수군의 경우도 진관체계가 완성되면서 그 체제가 갖추어졌다. 경상좌도에는 동평현 부산포에 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있었으며, 그 관할 하에 부산진관이 설치되고, 그 일에 두모포 등 10개의 만호영이 있었다. 이 중에서 동래현 관내에는 부산포전과 해운포영, 다대포영이 있었다. 그 후 일진왜란 직전 해운포영이 없어지고 다대포영이 점사를으로 승격되었다.

좌수영은 본래 태종 때 동래현 부산포에 있었는데, 국왕의 주장이 황인과 섞여 있게 할 수 없어서 올산으로 옮겨졌는데,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가 올산에 병영과 수영이 동시에 있게 되어 많은 페단이 발생하자 좌수영을 다시 동래 남촌면 수영으로 옮겼다. 조선정기에 수군절도사의 영을 개운포로 옮긴 것은 부산포는 왜선이 담는 곳이어서 대장이 거처하는 곳으로서 마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상좌수영 관내에는 2개의 점사영과 8개의 만호영이 있었다. 성종 연간에는 부산포와 다대포성에 족성이 이루어졌다. 이후 중종 39년 이전에 진관체계의 변경이 있었다. 이에 가덕도에 진관이 설치되었으며, 천성포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부산의 군사적인 위치는 더욱 중시되었다. 1483년(성종 14)에도 부산포첨결제사는 제포첨결제사와 함께 종래 종3품에서 정3품 당시로 부임하고 있었으며 좌도수사영의 이건 문제가 대두되고

80) 「성종실록」 권283, 24년 10월 21일 임오.
81) 「성종실록」 권77, 8년 2월 기유.
82) 「성종실록」 권151, 14년 2월 감손
있다. 그것은 경상도 수영을 동래 해운포로 옮기자는 것으로 1521
년(正徳 16) 순찰사고, 만수이가 제기하였다. 84) 당시 좌수영은 개운포에
있었으며, 옹산의 소관이었다. 그때 이건문자는 옹산에 병영과 수영
이 동시에 있으므로 민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문자는 많은 반대 여론이 나오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한 이유로는
해로상으로 좌도 연변의 중간지점인 부산에 이전하면 그 쪽이 허술
하다는 것. 또 하나는 부산포는 해인이 왕래하고 있으므로 주장이
이에 있으면 그 허실이 달지되기 쉽다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수영
소관의 재산 이동이 곤란하다는 것과 부산포가 지리적으로 협소하다
는 조건 등이 이전하는 데 어렵다는 점으로 지적되어 실행되지 못했
다. 한편으로 수영을 부산으로 옮기면 해적이 오는 걸림이므로 방어
하기에 편하다고 지적되었다. 85)

당시 수영의 이전지로는 배가 정박하기에 좋은 다대포에 이전하자
는 의견도 있었으나, 86) 형세가 마당하지 않았다. 87) 즉 다대포는 좁고
길이 협하여 벼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청렴포로 옮기고 성을 쌓아 보
수하고, 고령의 관저를 왕래하고, 군주와 기계를 다대포에 불어 벼어
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88) 나아가 좌도에서는 해운포를 동래 제석포
에 합하고, 다대포는 부산포에 합쳤다. 이러한 조치는 근거지인이 부
족하여 적이 많은 병력으로 침입해 오면 작은 병력으로 당할 수 없
기 때문에 취했기 심각하였다. 89) 그 뒤 산포에 거주하는 외인들의 난행
이 심했고 기세가 높아지는 산포왜란 적전에는 이건 문제가 다시 떠

83) 「성종실록」 권77, 8년 2월 치유.
84) 「중종실록」 권53, 20년 2월 산수.
85) 「중종실록」 권13, 6년 2월 계료.
86) 「성종실록」 권154, 14년 5월 8일 기례 ; 「중종실록」 권104, 39년 9월 경술.
87) 「중종실록」 권104, 39년 9월 감안.
88) 「중종실록」 권11, 5년 6월 음바.
89) 「중종실록」 권12, 5년 8월 계료.
두고, 적에도 거친을 동래 웅천 거제 가덕 등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전의 여론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좌수영은 동래의 해운포로 옮겼는데,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임진왜란 이전이었다. 90)

한편 좌수영에는 무관 3품의 좌수사와 부관으로 庸侯가 있었다. 수영의 사무는 6방에서 집행하였다. 좌수영 관할에는 무기고인 兵庫 27개와 원목 조달처인 7곳의 封山이 있었으며, 좌수영에는 523명의 수성군과 23척의 병선이 있었다. 첨사영에는 각각 9척의 병선과 2,200여 명의 군사가 있었다. 특히 성종 이후 부산포철책자는 정3품 당상관이 부임하였다. 만호영에는 4척의 병선과 1,101명의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다.

3. 관방시설

1) 성곽

조선전기 국방을 위한 여러 관방시설이 지역마다 전립되었다. 부산은 나라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국방상으로도 중시되어 각종의 국방시설들이 다수 설치되었다. 조선전기 부산지역에 설치된 관방시설은 성곽과 본수가 있다.

조선전기의 성곽은 동래읍성, 부산포진성, 해운포영, 다대포영이 있다고 한다. 동래읍성은 석축으로 둘레 3,090척이고 높이 13척이며 성내에는 무물이 6개이며, 부산포진성은 역시 석축으로 주위가 1,689척 높이가 13척이라 하고, 해운포영에도 석축으로 주위 1,036척

90) 「중도문헌비고」 권32, 여지도 23, 관방 8, 해방조.
91) 「산동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성곽조.
92) 「제증실록」 권150, 지리지 정상도 동래현.
이고 높이 13척이며, 다대포성은 석성으로 주위 1,860척이고 높이 13척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별 성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래읍성이다. 동래현성이 원래 해운포의 배산지역에 있자가 지금의 동래시장이 있는 곳으로 옛간 것은 고려 후기이다.93) 동래현 성은 세종 28년에 쌓았으며, 동래현 우성은 주위가 3천 책, 성의 높이는 13척, 높고 흔한 곳은 12척이며, 벽체의 높이는 2척이고, 월주가 12개, 문이 4개 소인데, 모호이 있으며, 여당이 5백 13개이고, 성 안에 우물이 6개 소, 때리위는 아직 파지 않았다.95) 이러한 사실은 이첨의 읍성기에 나타난다.

원수 박공이 일찍이 김해부사로 있을 때 처음으로 당산성을 지킬 것을 준비하였다. 사졸들이 의해서 허가한 번 시험하고자 할 때에 적이 개미처럼 몰려왔다. 공이 사졸들에게 영을 내려 들려 지키게 하고 화살과 돌을 내려 쓰나, 적같은 무리들이 죽고 도망하여 의로운 성이 우뚝하여 밝혀지 못하였다. (중략) 드디어 각 도에 영을 내려 연변 군현은 각기 성보를 설치하여 지키게 하라고 하였다. 그런 영후에 변경이 안정되고 평온해졌다. 그동안 이에 참문을 발송하여 장정을 내게 하고 성 높은 것을 살펴서 丁卯(신무 13, 1387) 8월 19일에 시작하여 달을 넘겨 완성하였하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징은 동래읍성은 고려후기 1387년에 박위부사가 쌓았으며, 변방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쌓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산포성은 동래가 2천 26척이며 높이가 13척이었다.96) 또 다대포성을 설치하였다. 동래 다대포에 보를 설치한 곳은 좌지가 남향인데, 틀레가 1천 2백 98척이고, 동서의 길이가 3백 60척이고, 남북의 너비가 2백 44척이며, 보 안의 셀이 하나이며, 이 포로부터 동

93) 「신충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성좌조 이첨의 옥성기.
94) 「세종실록」 권114, 28년 10월 10일 옴비.
95) 「단종실록」 권2, 추위년 8월 삼음.
96) 「성종실록」 권243, 21년 8월 기유.
북으로 동래현까지는 육로로 47리이고, 동으로 부산포까지는 수로로 4척에 있었다.

이처럼 조선전기에 부산지역에는 군사적 중요성을 높여 동래을성과 부산진성, 대대포성이 국가의 방어체계의 정비과정에서 대규모로 축조되었다. 이것은 육군과 수군의 방어거점이 되었는데, 부산의 군사적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봉수

우리나라에서 봉수는 삼국시기부터 이용되었지만 고려시기에 이르러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조선시기에는 봉수제도가 한층 정비되었 다. 즉 조선시기에는 전국적인 봉수당이 정비되었는데, 전국의 봉수당의 주요 간선은 5개의 적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동북쪽 두만강변의 함경도 서종 서수라 우암봉수대, 동남쪽 해변의 경상도 동래용봉봉수대, 서북쪽 양록강변의 평안도 강계 여문봉수대, 서남쪽으로 전라도 순천 방탑진의 돌산봉수대 등을 기점으로 하여 정해진 노선에 따라 최종적으로 서울의 목멱산봉수대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처럼 조선전기에 동래의 용봉봉수대는 전국 5개의 적봉 가운데 동남쪽 해변의 출발지였다. 이 점은 부산의 군사적 중요성을 말해준다. 한편 동래의 간비오산봉수대와 기장의 남산봉수대는 간동 1로에 속하였다. 이처럼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봉수대는 적봉과 간봉 제1로의 첫 출발지로서 중요성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진 초소의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전기 부산의 봉수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97) "상종실록" 권176, 16년 3월 방요.
98) 육군본부, "한국군체계", 봉수 486~535쪽.
99) "충보문헌비고" 권123, 兵考 15, 봉수조.
『경상도지리지』에는 3곳의 봉수가 있었다. 동평 석성봉수는 현 남쪽에 있어 서쪽으로 김해의 성화면봉수에 응하고, 동쪽으로 황령산에 응한다. 동래현의 황령산봉수는 동쪽으로 간비오에 응하고, 간비오는 동쪽으로 기장현 남산에 응한다. 이처럼 세 곳의 봉수가 전관의 범위에 비상통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황령산봉수대는 부산포, 간비오봉수는 해운포만호진, 석성봉수대는 다대포만호진을 방수하는 휘라조소였다.

한편 1469년(예종 1)『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동래현의 계명산봉수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동국여지승람』에는 4곳의 봉수대가 있고, 1530년(중종 25)에는 응봉이 참가되고 있다. 그러나 예종 원년에서 1481년(성종 12) 사이에 석성봉수가 폐지되고, 오해야봉봉수가 신설되었다. 그리고(성종 12)에서(중종 25) 사이에 다대포 두송산정에 응봉봉수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510년(중종 5)에 삼포해란이 있고, 중종 연간에 수군의 진단체제가 바뀌면서 봉수대도 다시 편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부산지역 군사전략의 전초지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표 9 조선전기 지리지에 나타난 봉수

<table>
<thead>
<tr>
<th>경상도지리지</th>
<th>석성봉수대, 황령산봉수대, 간비오봉수대</th>
</tr>
</thead>
<tbody>
<tr>
<td>예종선봉지리지</td>
<td>석성봉수대, 황령산봉수대, 간비오봉수대</td>
</tr>
<tr>
<td>경상도속찬지리지</td>
<td>석성봉수대, 황령산봉수대, 간비오봉수대, 개영산봉수대</td>
</tr>
<tr>
<td>동국여지승람</td>
<td>황령산봉수대, 간비오봉수대, 개영산봉수대, 오해야봉봉수대</td>
</tr>
<tr>
<td>신중동국여지승람</td>
<td>황령산봉수대, 간비오봉수대, 개영산봉수대, 오해야봉봉수대, 운봉봉수대</td>
</tr>
</tbody>
</table>

### 표 9에서 보면 조선전기에 부산지역에는 처음에 3곳의 봉수대

100)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동래현.
가 있다가 금 5개로 증설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모습은 부산의 군 사적 중요성과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다.

IV. 맥음말

이상에서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행정과 관방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함으로써 맥음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조선전기에 동래가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서 기투이 마련된 것은 일 본인에 대한 회유정책으로 마련된 왜관의 설치와 함께 왜구에 대비 하는 국방도시로서의 성격을 더욱시부터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부산이 근대 항구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조선전기에 무역과 국방의 전초기지라는 요충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부터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조선전기 동래의 행정과 관방문제는 중요성을 갖는데, 동래는 조선전기부터 국방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중시된 지역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지역이 역사상 제 위치를 잡은 것은 조선전기부터 있다고 할 것이다.

조선전기 동래의 일반 행정조직과 체제는 중앙과 지방세력 사이의 세력장악이란 측면에서 중요하였다. 그것은 군현제와 면리제의 시행으로 간접되었다.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이란 측면에서, 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치조직의 행정조직화를 통해 자율행정의 확보를 추구해 나갔다. 이것이 조선전기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의 행정적인 면에서 나타난 과도기적이자 발전적인 면모이며, 지방행정제도가 보여주는 변화와 발전적인 모습이었다. 조선전기에 동래에서도 수령권의 강화와 면리제의 실시가 확인된다. 또
행정체계 면에서는 동래도 역사 관치·자치·실무 행정조직 사이에
삼각체계가 성립되어 병립하면서 수령권을 통한 중앙집권력이 강화
되어 나갔다.
조선전기의 관방문제는 부산지역의 경우 왜구 문제 때문에 어느
시기보다도 중시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과 가까운 나라의 관문인 부
산의 경우 관방문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추진되었다. 이
에 부산에는 좌수영성과 포진들이 설치되었다.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국방은 국방체계 면에서는 육군과 수군으로
이원화되었다. 사회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국방자원의 확보와 국방체
계의 확보가 중요하였는데, 이는 군사시설과 조직의 강화로 이어졌
다. 즉 군사조직과 지휘체계 상에서 동래도호부의 성립과 부산포진
관의 설치, 좌수영성의 이전이 나타났다. 또 군사방어체계의 변화에
따라 동래읍성, 다대진성의 수축이 단적으로 이를 맞춰준다. 다음으
로는 군역자원의 확보 방안이다. 육방군의 확보와 수군의 집중배치
를 통해서도 부산지역이 일본에 대한 주요 방어 지점이었음을 단적
으로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행정과 관방문제는 중세봉건사
회의 체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하면서
진행되어 나갔으며, 부산의 경우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이런 면모
들이 더욱 더 일반화되고 상화되어 나갔다고 하겠다. 한편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군사행정과 일반행정이 미분화된 점은 중세봉건사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행정의 전문화와 조직의 세분화는
근대행정으로의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조선시대의
과도기성을 맞추었다고 할 것이다.